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연월일 (제 회)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안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6월 24일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4. 6. 24.

제안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주 문

- 대한민국 첨단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함.

제안이유

- 첨단바이오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최고급 연구원을 양성하여 파괴적·창의적 혁신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R&D 중심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함.
- 충북 오송은 식약처 등 정부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기업생태계가 우수해 産學研官病(산학연관병)이 집적된 “제대로 된 바이오 클러스터” 구현에 최적지임.
- R&D, 창업 등 고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한 혁신 거점을 非수도권에 구축하여 지방의 자생적 성장 계기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균형발전 도모도 가능함.
- 이에 따라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강력히 건의함.

- 보내는 곳: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붙임 건의안 1부.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세계 주요 기술 경쟁국간 글로벌 바이오 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경쟁력은 2009년 15위에서 2018년 26위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강국이 첨단바이오를 국가안보로 인식해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인재 양성에 집중하면서, 2024년 현시점의 바이오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첨단바이오 분야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기술 수준에 77.9%로 3.1년 뒤처져 있고, 2020년에는 중국에도 추월당하며 기술 경쟁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첨단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의 구심점이 되어줄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37년이나 준공이 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이기에 국가간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기술 패권 경쟁과 안보 분야의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당장 1분 1초가 매우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충북 오송은 식약처 등 정부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기업생태계가 우수해 산학연관병(産學研官病)이 집적된 “제대로 된 바이오 클러스터” 구현에 최적합지입니다.

또한 서울로부터 4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非수도권 내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지방의 자생적 성장 계기 마련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입지적인 이점이 극대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AI 바이오 영재학교,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CTX까지 연계한다면 첨단바이오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기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 지난 3월 충청북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 바이오를 위한 선도 기지를 충북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조기 착공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4. 6. 24.

충청북도의회